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

- 미국,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한인여성을 중심으로 -

Family Value Orientations of Korean Women Abroad in America,
China, and Russia · Central Asia*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김경신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선미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Kyeong Shin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

Full-time Researcher : Lee, Seon M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general trends of the family value orientations (FVO) of overseas Korean women,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related variabl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FVO and the related variables.

The subjects were 1,413 Korean women over 20 years living abroad in America (363 women), China (555), and Russia Central Asia (495 women). The subjects completed a questionnaire on FVO.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Korean-American women's FVO were modernistic, Korean-Chinese women's were traditional, and Korean women in Russia · Central Asia showed neither traditional nor modern FVO.

Corresponding Author: Lee, Seon Mi,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2702 Fax: 82-62-530-2707 E-mail: dreamlp@empal.com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L2002).

2. The overseas Korean women's values were different from the value's dimension. 'Filial piety' showed very traditional value orientations, but 'preference of son', and 'mate selection' showed modern FVO. The dimensions of FVO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iving region.

3. The FVO valu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ge, and period of education. Korean-American women's FVO were positively related to age, health condition, and the cognition of being Korean. Korean-Chinese women's FVO were related to age, living condition,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respect, and life satisfaction. Russia Central Asia women's FVO were correlated with age, period of education, living condition, health condition, the cognition of being Korean,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respect, and depression.

주제어(Key Words): 재미한인여성(Korean-American women), 중국 조선족 여성(Korean-Chinese women),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여성(Korean women in Russia Central Asia), 가족가치관(family value orientations: FVO), 지역차이(difference in region)

1. 서론

세계화를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와 함께 남한인구의 12.5%에 달하는 600만 재외한인들의 국내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각 국가들의 체제전환이후 재외한인여성들의 국내취업, 혼인 등의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제 재외한인의 문제는 국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당면하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재외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2003년 현재 전체 재외한인의 49.03%가 거주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지역에는 40.04%, 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 유럽의 경우에는 전체 재외한인의 10.73%가 거주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3). 미국 상무성(2004)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재미한인여성 인구는 총 597,260명으로 미국내 한인인구의 55.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여성은 총 966,896명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2000년 제5차 인구보편조사 자료). 2001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러시아 고려인 여성은 95,412명으로 전체 고려인의 52.2%였고, 카자흐스탄은 51.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한인의 힘을 한민족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최근의 움직임들 속에서, 재외한인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힘은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급격한 변화 현상은, 이들의 행동양식이 정신적, 물질적 측면의 총체적 사회변화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재외한인여성의 힘은 큰 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왔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억압의 양상은 재외한인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어 왔다. 또한 재외한인여성들은 거주국내 소수민족으로서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어 성차별, 소수민족차별의 이중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의 갈등은 심화되어, 여성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변기에 재외한인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이들을 자원화 함으로써 민족의 힘을 증대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와는 가족구조가 확연히 다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여성이나, 최근 개혁개방이후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 여성, 러시아·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여성은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적응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치관은 개인에게 평가의 기준을 제공해주며,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규범을 제공해 준다고 볼 때, 전통적인 한국적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해 재외한인여성의 생활과 의식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재미한인의 경우는 이민 1, 2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한국생활을 경험했거나 한국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다. 따라서 다분히 한국적인 사고와 생활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문화로의 적응과정에서 한국적 가정생활 및 가치관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이는 가족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재미한인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양상은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여성도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미한인여성들은 여성의 희생에 강요하고, 가부장의 절대적 권위를 존중하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김광정, 김신, 2002; 김연진, 1999; 문애리, 2002; Moon, 1998).

중국 조선족은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동포들보다 우리문화의 전승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상당부분 한국 가정의 특성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조선족은 최근까지 가부장제를 유지해 왔으며 효개념, 多子多福, 남아선호사상, 성역할, 성규범 등 의식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전통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왔다(강순화, 2002). 그러나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 여성의 가치관은 상당히 변화하였고, 가족의 특성보다는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가정중심적인 전통적 가치관이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현재 조선족 사회는 이혼율 증가, 성외결혼(국제결혼)증가, 해외 노무송출로 인한 이산가족의 문제, 자녀수 감소의 문제, 이민족 혼인 증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연결되어 조선족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요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족 여성의 가치관 변화 경향은 현재 과도기에 처해있다 할 수 있어, 조선족 가정은 전통적 생활양상과 현대적 생활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박민자, 2000).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부부유별', '조강지처', '일부종사'와 같은 전통적 규범이 의식에 깊숙이 남아 가정의 안정성과 남성중심적인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반면,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혼외연애', '시험혼인', '비둘기부부(DINK족)',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등 현대적 가치관이 반영된 가정생

활을 추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러시아·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여성들은 중국에 비하여 한국과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한국인이나 한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한인 여성으로서의 특성이 상당히 이질화 되었다. 현재 고려인 여성들은 이민 3, 4세가 대부분이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전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 부분은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 남아선호 사상과 효사상, 부모부양의무 등을 나타내고 있다(김경화, 1999; 박명규, 1996; 이정옥, 1996; 정근식, 1995). 그러나 체제변화이후 고려인 여성들은 현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적응의 과정속에서 가치관의 변화 또한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의 재외한인여성들은 거주국내 급격한 사회변화와 적응 과정속에서 생활과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특성에 한국 고유의 문화적·역사적 요인이 가세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지역적인 변수가 첨가되어 재외한인여성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신중하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각 지역별, 영역별로 진행되었고, 재외한인연구의 일부로만 다루어졌을 뿐 재외한인여성만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재미한인여성의 가치관과 관련된 연구들로는 문애리(1995, 2002), 민병갑(1999), 옥선화, 백희영(1999) 등이 있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연구는 강순화(2002), 김호웅(1995), 오상순(2000), 고려인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광규(1991), 이정옥(1996)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전반적인 가족가치관을 다루기보다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몇 문항을 직접 질문하는 식의 제한된 조사를 통해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을 거주지역에 따라 파악하고, 가족가치관이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관련변인들과 가족가치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며,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가변적 요소와 불변적 요소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재외한인여성의 미래지향적인 가족가치관 형성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적 요인이 여성의 가족가치관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및 사회문제에 대한 비교 상황적인 대안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차이는 어떠한가?
3. 관련변인과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상관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관계 관련변인, 가족가치관 변인 등을 조사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거주지역, 연령, 교육연수, 종교, 생활수준, 직업유형, 가족형태, 혼인상태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관련변인

관련변인으로 건강상태, 한인인식정도, 부부관계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우울을 사용하였다. 건강상태와 한인인식정도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부부관계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남편, 자녀와의 친밀성, 의사소통

효율성,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에 대해 각 3문항씩을 조사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각 지역별 Cronbach' α 는 .89-.92 사이에 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구체적 문항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등이다. 자아존중감의 Cronbach' α 는 재외한인여성 및 조선족 여성이 각각 .83,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여성의 경우 .69였다. 생활만족도는 '나는 전반적으로 나의 삶에 만족한다' 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나는 요즘 보통 때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나의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나는 우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나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등 생활전반에서 나타나는 우울과 관련된 5문항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매우 그렇다'에 5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는 .73-.78 사이에 있다.

3) 가족가치관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은 관련연구(김경신, 2002; 옥선화, 1989; 옥선화, 백희영, 1999)를 토대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가치관은 가족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족의 범위, 남아선호사상, 효사상, 노부모 부양 의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는데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Cronbach' α 는 재외한인여성 .77, 조선족 여성 .78, 고려인 여성 .69였다.

2. 조사대상

이 연구는 미국,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한인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총 조사대상자 수는 1,413명이었는데, 구체적인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자는 다음 <표 1>과 같다.

미국에서는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213부(58.7%), 뉴욕에서 150부(41.3%), 총 363부가 조사되었다. 중국에서는 전체 조선족 인구의 92.3%가 거주하는 동북 3성(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2004)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길림성에서는 장춘시, 길림시, 연길시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흑룡강성은 하얼빈, 요녕성은 심양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하였으나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55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길림성 거주자 383명(69.0%), 흑룡강성 거주자 70명(12.6%), 요녕성 거주자 102명(18.4%)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우스리스크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지역은 고려인들이 초기에 정착한 지역으로 아직까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강제 이주시 한인 정착촌을 이루었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조사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쉬켄트시와 김병화 농장에서 조사되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알마티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러시아 거주자 202부(40.8%), 우즈베키스탄 거주자 190부(38.4%), 카자흐스탄 거주자 103부(20.8%)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각 지역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표 1>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자 수

국 가	미 국	중 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 역	로스앤젤레스, 뉴욕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연해주, 사할린, 타쉬켄트, 알마티
배 부 수	365부	600부	500부
분 석 에 사 용 된 수	363부	555부	495부

같다.

대체로 재외한인여성의 교육기간은 13년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학력수준이었고, 재미한인여성의 87.6%, 고려인 여성의 57.2%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나 조선족 여성의 80.1%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미 국	중 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연 령	60대	27(7.5)	92(19.0)	47(9.5)
	50대	41(11.4)	88(18.2)	102(20.7)
	40대	114(31.8)	92(19.0)	109(22.1)
	30대	157(43.7)	80(16.5)	99(20.1)
	20대	20(5.6)	132(27.3)	136(27.6)
교육 기간	6년 이하	3(0.8)	0(0.0)	8(1.8)
	7-9년	1(0.3)	23(5.0)	12(2.7)
	10-12년	52(14.7)	116(25.4)	128(28.5)
	13년 이상	298(84.2)	317(69.5)	301(67.0)
종 교	기 독 교	318(87.6)	45(9.7)	267(57.2)
	불 교	10(2.8)	18(3.9)	30(6.4)
	천 주 교	21(5.8)	16(3.5)	3(0.6)
	유 교	0(0.0)	3(0.6)	2(0.4)
	기 타	1(0.3)	10(2.2)	33(7.1)
	종교없음	13(3.6)	371(80.1)	132(28.3)
생활 수준	최상	1(0.3)	2(0.4)	2(0.4)
	상	22(6.1)	25(5.3)	7(1.4)
	중상	83(23.1)	103(21.8)	35(7.2)
	중	197(54.9)	259(54.9)	304(62.9)
	중하	42(11.7)	72(15.3)	92(19.0)
	하	9(2.5)	9(1.9)	35(7.2)
최하	5(1.4)	2(0.4)	8(1.7)	
직 업	주부, 무직	174(48.5)	51(10.5)	146(30.2)
	단순노무직	11(3.1)	19(3.9)	45(9.3)
	농축수산업	1(0.3)	5(1.0)	10(2.1)
	자영업, 판매직	20(5.6)	51(10.5)	67(13.8)
	기술직	15(4.2)	11(2.3)	15(3.1)
	전문기술직	27(7.5)	33(6.8)	9(1.9)
	사무직	58(16.2)	191(39.5)	75(15.5)
	전문직, 경영관리직	17(4.7)	72(14.9)	46(9.5)
	기타(학생 등)	36(10.0)	51(10.5)	71(14.7)
	가족 형태	부부와 미혼자녀	248(68.7)	282(57.8)
확대가족		20(5.5)	70(14.3)	105(21.9)
부부만 사는 형태		69(19.1)	114(23.4)	31(6.5)
기 타		24(6.6)	22(4.5)	69(14.4)
혼인 상태	미 혼	34(9.4)	119(24.4)	93(37.8)
	기 혼	328(90.6)	368(75.6)	397(62.2)

타났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대부분 중간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은 재미한인 여성과 고려인 여성은 주부, 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조선족 여성의 경우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의 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기혼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 실태조사를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의 한인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지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는데, 미국은 LA와 뉴욕에 거주하는 유학생들, 중국은 연변대학교,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세종한글학교,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카자흐스탄 한국학센터 등의 도움을 받았다.

설문조사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에서 동시에 실시되었

는데, 국내 연구진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현지 조사가원이 한인여성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각각 작성되었는데, 중국과 미국에서는 주로 한국어 설문지가 사용되었고, 러시아·중앙아시아에서는 모두 러시아어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빈도, 백분율, Cronbach's α , 평균, 표준편차,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등이 실시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지역 비교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지역차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지역차

문항	미 국	중 국	러시아·중앙아	F	D#
	M(SD)	M(SD)	M(SD)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본인들 생각보다는 부모가 찬성하는가. 가족과 더 잘어울릴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2.93(1.08)	2.89(1.30)	2.87(1.09)	.25	
가족은 의사결정에서 우선적으로 가부장의 말을 따라야 한다	2.93(1.05)	3.26(1.17)	3.58(.92)	40.03***	C/ B/ A
시가와 친정 모두에서 어렵게 사는 친척이 있다면 시가 쪽 친척을 먼저 도와야 한다	2.54(1.07)	3.23(1.18)	2.58(1.02)	59.69***	B/ A/ B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친척이 더 큰 의지가 된다	2.94(1.11)	3.54(1.18)	3.71(1.01)	53.03***	C/ B/ A
여성이 아들을 못 낳는 것은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1.51(.89)	1.93(1.30)	1.89(.90)	19.50***	B/ A/ A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다른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3.75(.92)	4.37(.95)	4.15(.74)	52.47***	C/ A/ B
조상의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	2.07(1.19)	3.60(1.22)	2.52(1.17)	194.86***	C/ A/ B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61(1.02)	3.54(1.23)	3.04(1.07)	75.33***	C/ A/ B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2.30(1.06)	3.16(1.32)	3.01(1.13)	60.11***	B/ A/ A
노후에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다	2.12(1.08)	2.82(1.41)	2.65(1.21)	34.19***	C/ A/ B
전체	2.57(.60)	3.23(.71)	3.00(.53)	121.35***	C/ A/ B

*** p<.001, #: Duncan의 사후검정은 미국/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의 순서임.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전반적인 경향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재미한인여성은 2.57점으로 근대적 태도를,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여성은 3.00점으로 전통과 근대적 태도의 중간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중국 조선족 여성은 3.23점으로 세 지역 중 가장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거주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재미한인여성들은 근대적 가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거주국내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을 수용하여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상당부분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은 조선족 자치주를 형성하여 조선족의 문화, 전통적 생활양식을 비교적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에서도 전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여성들은 선행연구들(이정옥, 1996; 정근식, 1999)의 결과와 비교할 때 전통적 가치관의 경향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한민족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개방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경신(1998a)에 따르면 한국 어머니의 가족가치관은 각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통과 근대의 중간적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별 분석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노년기가 가장 전통적이고 중년기는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어(김경신, 1998b), 한국여성의 가치관도 점차 재미한인여성의 가치관과 유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문항별 분석에 따르면 세 지역 모두에서 영역에 따라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에 대한 효 가치관은 세 지역 모두에서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이 아들을 못 낳는 것은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에서는 상당히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에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다'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본인들 생각보다는 부모가 찬성하는가,

가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등에서 세 지역 모두 비교적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문항분석에 따르면, 재미한인여성의 경우 부모님에 대한 효 가치관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중간적인 3점 이하로 나타났는데, 그 중 배우자 선택시 가족 고려, 가부장의 권한, 친척우선주의 등에서는 비교적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미한인여성은 일부 영역에서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근대적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옥선화, 백희영, 1999)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민 1, 2세대가 주를 이루는 재미한인여성은 남성에 비해 현지 적응이 더 빠른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새로운 언어를 빨리 배울 뿐 아니라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미국 문화 자체가 여성에게 더 편하고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신경림, 1995; 신혜섭, 1995). 따라서 재미한인여성은 미국의 근대적 가치를 빠른 속도로 수용하나, 상대적으로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편이나 아버지와의 갈등속에서 가족가치관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미한인 내 세대간 갈등이 있음(김연진, 1999; 신혜섭, 1995)에도 불구하고 효에 대한 개념 등이 강조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부양기대감은 낮게 나타나, 재미한인 가족에서 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 김광정, 김 신(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 조선족 여성은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형성하여 조선족의 언어, 문화, 풍습 등을 유지해 왔다. 최근까지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을 비교적 잘 유지해 왔지만 개혁개방이후 개인주의의 강조, 이혼의 증가 등으로 가족가치관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족 여성은 '배우자 선택시 본인보다는 가족을 먼저 고려한다'는 문항에 근대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어 연애 및 결혼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아들 출산 의무, 노후 아들 부양기대감 문항에서도 근대적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복희, 이재연, 윤종희(199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경향으로 중국이 강력히 추진해온 가족계획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에서 한 두 자녀만을 낳게 됨으로써 아들에 대한 지향성이 불가피하게 억제된 탓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식이나 시가우선주의, 친척우선주의, 효도, 제사, 장남의 부양책임 등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여성은 배우자선택, 친척우선주의, 여성의 아들 출산 의무, 제사, 노후 아들 부양기대감 등에서 근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남녀평등과 관련된 가족가치관의 경우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부양이나 장남의 부양 의무 등에서는 중간점인 3점에 근접한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가부장의 권한, 친척의 중요성, 효도 등의 항목에서는 전통적인 태도를 나타내 대체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영역에 따라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은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과정에서 수많은 비극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이혼을 당연시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가 약한 러시아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유지해 왔다(박명규, 1996). 그러나 여성해방을 강조하는 구사회주의체제에서 고려인 여성은 자연스럽게 남녀평등적 가치를 수용하였고, 개혁개방이후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보편화되면서 가족보다는 여성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각 문항별 지역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은 의사결정에서 우선적으로 가부장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문항,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친척이 더 큰 의지가 된다'라는 문항에서는 고려인 여성이 가장 전통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족 여성의 가족가치관이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난 가족가치관 전체점수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고려인은 연해주에 정착할 무렵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고, 최근 연해주로의 재이주과정에서 가족간의 강한 유대를 통해 가족해체를 강요하는 외압

을 지켜내왔다. 그리고 가족간의 유대는 부모 자식간의 직계 관계뿐 아니라 친척간으로 확대되어, 친척과의 응집이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주요 생계 수단으로 고본질을 하는데, 대부분 친척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이정옥, 1996). 고본질이란 일종의 계절이동농업으로 농사철에 다른 지역으로 일시 이주하여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현지에서 판매하여 일년치 생활비를 벌어들인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유의정, 안승환, 2002). 고려인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성은 가족을 유지하고 친척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 수단으로 강한 가부장권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반면 중국 조선족은 일찍이 동북 3성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였고, 소수민족 우대 정책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고려인 가정에 비해 강력한 가부장권이나 친족간 유대의 필요성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시가친척 우선주의의 경우 중국 조선족 여성은 전통적 가치관을, 재미한인여성고 고려인여성은 근대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의 부모부양 책임에 관해서는 재미한인여성, 고려인 여성이 근대적 가치관을, 조선족 여성이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아들출산의무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른 지역보다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효도의 중요성, 제사, 자식의 부모부양, 노후 아들 부양기대감 등에서는 재미한인여성이 가장 근대적 태도를 나타냈고, 다음이 고려인 여성, 조선족 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은 다음 <표 4>와 같다.

재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연령, 교육기간, 직업유무 등에서 유의한 집단차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 때, 학력수준이 낮을 때, 직업이 없을 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

<표 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

변 인		미 국				중 국				러시아·중앙아시아			
		M	SD	F(t)	D	M	SD	F(t)	D	M	SD	F(t)	D
연 령	20대	2.42	.60	3.68**	B	3.12	.56	6.91**	BC	2.87	.50	13.10***	B
	30대	2.47	.59		B	3.24	.66		B	2.88	.49		
	40대	2.64	.57		AB	3.02	.80		C	2.93	.48		
	50대	2.65	.59		AB	3.21	.76		BC	3.22	.52		
	60대	2.84	.65		A	3.52	.73		A	3.31	.61		
교 육 기 간	9년 이하	3.28	.72	3.63*	A	3.38	.65	3.18*		3.21	.63	4.24*	A
	10-12년	2.65	.61		B	3.32	.64		B	3.08	.56		
	13년 이상	2.54	.58		B	3.15	.72			2.95	.50		
직 업 유 무	없 음	2.65	.56	2.51*		3.20	.83	-.31		3.14	.51	3.73***	
	있 음	2.49	.63			3.23	.70			2.95	.53		
혼 인 상 태	미 혼	2.69	.80	8.97		3.19	.49	-.94		2.81	.47	-3.97***	
	기 혼	2.56	.57			3.25	.77			3.05	.54		
가 족 형 태	핵 가 족	2.56	.57	.51		3.19	.69	5.70**	A	2.95	.52	5.22**	B
	확대가족	2.60	.84			3.46	.79		A	3.18	.56		
	부부가족	2.65	.55			3.25	.67		A	2.92	.42		
	기 타	2.51	.79			2.79	.70		B	2.95	.55		

* p<.05 ** p<.01 *** p<.001

여성은 대체로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60대인 집단이 2.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교육기간이 9년 이하인 집단이 3.28점으로 근대적 태도를 보인 다른 집단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직업이 없는 집단이 2.65점, 직업이 있는 집단이 2.49점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전통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며, 전통적 가치관과는 다른 생활상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한 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근대적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재외한인여성들은 연령, 기술,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미국적 가치관을 접할 기회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은 반면, 한국에서 경험한 생활풍습 및 가치관을 그대로 간직할 가능성이 높아 근대적 방향으로의 가족가치관변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여성은 연령, 교육기간, 가족형태에서 유의한 집단차를 보이는데, 40대 집단이 3.02점으

로 가장 낮은 점수를, 60대 집단이 3.5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이한 사항은 2, 30대가 40대에 비하여 오히려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박혜란(1994)의 연구에서 지적한대로 유복한 환경에서의 성장세대인 2, 30대가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상업주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의식으로 일부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기간이 9년이하인 집단이 3.38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가 기타인 집단의 가족가치관은 2.79점으로 다른 집단과 달리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기타 가족형태는 기숙사나 자취 등이 포함되고 있어 부모와 떨어져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조선족 여성의 근대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인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연령, 교육기간, 직업유무, 혼인상태, 가족형태 등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5, 60대의 고려인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3.22, 3.31점으로 나타났고, 40대 이하 집단에서는 중간점인 3점 이하로 나타나 젊은층의 근

대적 가치관으로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층은 노년층과의 의식차를 느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때는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기간이 13년 이상인 집단은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는 집단은 2.95점, 미혼인 집단은 2.81점으로 3점 이상을 나타낸 다른 집단보다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대가족인 집단은 3.18점으로 근대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집단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연령과 교육연수는 세 지역 모두에서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재외한인여성의 교육연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면, 가족가치관은 점차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3. 가족가치관과 관련변인간 상관관계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재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연령, 건강상태, 한인인식정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5>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변인간 상관

	가족가치관		
	재미한인여성	조선족여성	고려인여성
연령	.20***	.16***	.28***
교육기간	-.05	-.07	-.18***
생활수준	-.05	-.10*	.13**
건강상태	.18***	-.03	.17***
한인인식정도	.19***	.01	.13**
부부관계만족	-.07	.28***	.14**
부모자녀관계	-.05	.22***	.12**
자아존중감	-.00	.33***	.10*
생활만족도	-.06	.27***	.02
우울	.11	.05	.13**

* p<.05 ** p<.01 *** p<.001

연령과 가족가치관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재미한인의 특성상 연령이 높을수록 이민 1세대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한국생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족가치관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인노인 이민자들의 이민 동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강한 가족가치관 때문에 이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Yu, 1987). 즉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손자녀를 키워주기 위해 이민을 온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현지인과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한국인과의 접촉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교적 한국적인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잘 유지해 왔을 것이다. 또한 한인이라는 인식을 할수록 한인으로서의 생활 및 태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이것이 영향을 주어 한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여성 가족가치관은 연령, 부부관계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 사회는 해외, 특히 한국으로 돈벌이 나간 여성들로 인한 별거 가정,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강순화, 2002). 따라서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부모와 남편에게 뒷바라지 하는 여성의 전통적 가치관은 원만한 가족관계와 정적 상관을 가지며, 높은 생활만족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연령, 생활수준, 건강상태, 한인인식정도, 부부관계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교육기간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고려인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다른 지역 여성과 달리 결혼여부와 우울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러시아·중앙아시아의 사회환경 변화와 유관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개혁 이후 러시아·중앙아시아는 중국에 비해 급속한 사회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개인 및 가정의 혼란 또한 급증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로 변화해가는 빠른 사회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며 혼란스러워 하고, 이는 우울수준의 증가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세 지역 모두에서 연령과 가족가치관과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미한인여성은 비교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선족 여성과 고려인 여성의 경우는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등 가족관계가 가족가치관과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이 연구는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을 거주지역에 따라 파악하고, 가족가치관이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외한인여성의 미래지향적 가족가치관 형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하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미국에서 363명, 중국에서 555명, 러시아·중앙아시아에서 495명, 총 141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전반적인 경향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재미한인여성은 근대적 태도를,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여성은 전통과 근대적 태도의 중간적인 입장을, 중국 조선족 여성은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은 비교적 전통문화를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상당히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미한인여성은 자유와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상당부분 근대적 가족가치관으로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개혁개방이후 시장화 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여성의 가치관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가치관은 근대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바(강순화, 2002; 박민자, 2000; 이복순, 1999),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는 당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고유성과 내재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가족가치관 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재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영역에 따라 전통과 현대적 변화 속에서 혼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 지역 모두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 가치관은 매우 전통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과 관련된 가치관이나 아들선호, 아들부양기대 등의 가치관에서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식의 내면적인 부분은 전통적이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부분, 사회체제의 변화에 의한 부분은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가 강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형식은 근대적이나 내용은 전통적인 이중 구조적 의식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갈등적 구조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결되어 재외한인여성의 적응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군다나 재외한인여성의 급격한 가치관 변화와 부적응의 문제는 국제교류가 원활해지고 있는 현재 모국인 한국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보다는 개인과 자본을 우선시하는 여성의 변화로 인해 조선족 여성이나 고려인 여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고, 이들은 국내에서 또 다른 부적응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한인여성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을 초월한 공동체적 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리라 본다.

3. 재외한인여성 가족가치관의 상관분석에 따르면, 세 지역 모두에서 연령이 중요 상관변인으로 나타났다. 차이 분석에서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가족가치관의 관계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연령별 차

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미래 한인사회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더욱이 최근 여성의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한 세대별 차이는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파생시키는 강력한 유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체제변화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조선족 여성과 고려인 여성의 연령에 따른 가치관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른 구세대와 신세대간 갈등의 정도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경우 젊은 세대의 전통가치로의 일부 회귀 현상이 나타나 여성발전의 측면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4. 각 지역별로 가족가치관과 상관을 보이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가족가치관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은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조선족 여성의 전통가치가 생활에서 중요 변인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조선족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고려인 여성의 가족가치관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미국의 재미한인여성의 경우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접근을 할 때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접근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재외한인여성은 여성이라는 조건과 한국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요인,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 타 지역에 적응하여 살아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게다가 현대의 재외한인여성들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라는 커다란 혼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과 근대가 혼재된 가치관을 갖는 재외한인여성들의 적응방향을 모색하고, 각 지역별 가치관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한인여성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을 통해 재외한인여성의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재외한인 여성의 힘을 자원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화(2002). 중국 조선족 가족의 변화와 문제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 특강 자료.
- 김경신(2002).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 한국노년학연구, 11, 63-86.
- 김경신(1998a).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 김경신(1998b).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 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경학(1999). 중앙아시아 한인의 사회구조와 문화 (카자흐스탄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한인연구(pp.75-130). 광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연진(1999). 미국내 한국 이민과 소수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 미국학논집, 31(1), 259-302.
- 김광정, 김 신(2002). 시카고 한인사회: 역사와 현 생활상.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pp.359-382). LA: 한미동포재단.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남가주 기념사업회.
- 김연진(1999). 미국내 한국 이민과 소수 민족적 정체성의 형성. 미국학논집, 31(1), 259-302.
- 김호웅(1995). 중국조선족 가족실태 연구. 가족학논집, 7, 333-353.
- 문애리(1995). 재미교포 여성의 한국문화관과 통일 의식. 여성학논집, 12, 147-170.
- _____ (2002). 재미한인여성고 노인.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pp.235-256). LA: 한미동포재단,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남가주 기념사업회.
- 미국 상무성(2004). 2000년 센서스 자료. <http://www.census.gov/>
- 민병갑(1999). 한인이민부모의 유교적 자녀교육방법과 한인이민가족의 세대갈등. 한인이민가족의 세대갈등 워크숍 발표논문집. 25-42.
- 박명규(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집합적 정체성과 변화. 사회와 역사, 48, 11-54.
- 박민자(2000). 중국 조선족 혼인가정 현상태에 대한 재사고. 중국조선족 현상태 분석 및 전망연구

- (pp.179-194). 연변: 연변대학출판사.
- 박혜란(1994). 구술사를 통해 본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여성학논집, 11, 11-46.
- 신경립(1995). 재미한민족 여성의 갈등과 삶 -중년 이민 1세 여성건강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12, 205-242.
- 신혜섭(1995). 재미 한인가족의 적응과 생활. 가족학논집, 17, 355-366.
- 이광규(1991). 중앙아시아 재소한인 가족에 대한 연구. 가족학논집, 3, 1-19.
- 이복순(1999). 가정내에서의 조선족 여성생활의 현황과 전망. 중국, 조선, 한국의 동포여성들의 삶 학술회의 자료집, 15-31.
- 이정옥(1996). 중앙아시아 한인 가족구조의 변화 -해체·재결합·분절의 역동성. 사회와 역사, 48, 133-164.
- 유의정, 안승환(2002). 불고그라드 한인사회와 한국의 지원방안.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사회연구(pp.129-148). 서울: 재외동포재단.
- 오상순(2000). 개혁개방과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의식변화. 민족과 문화, 9, 81-117.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선화, 백희영(1999). 재미동포 가족의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 실태조사-로스엔젤레스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 외교통상부(2003). 재외동포현황.
- 정근식(1995).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일상생활과 문화. 한국사회학회 95년 후기사회학 대회 자료집, 215-233.
- 조복희, 이재연, 윤중희(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1), 35-44.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2004). 2000년 제5차 인구보편조사 자료.
- 황영삼(2003). 모스크바 고려인 3, 4세의 의식과 생활문화.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사회연구(pp.15-42). 서울: 재외동포재단.
- Moon, A. (1998). Attitude toward ethnic identity, marriage, and familial life among of Korean descent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 Y. I. Song & A. Moon(eds.), *Korean American Women: From Tradition to Modern Feminism* (pp.65-72).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u, E. Y. (1987). "Korean-American Women: Demographic Profiles and Family Roles," In Eui-young Yu and Earl H. Phillips(eds.), *Korean Women in Transition: At Home and Abroad*(pp.183-197), Los Angele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04년 10월 29일 접수, 2005년 2월 24일 채택)